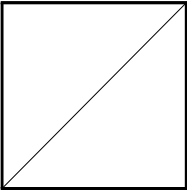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50 호	보 고 사 항
보 고	2023. 12. 6.	
연 월 일	(제 21 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7호 ‘현금흐름표’와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공급자금융약정’  
개정결과 보고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소 영
제출 연월일	2023. 12. 6.

## 1. 보고주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7호 '현금흐름표'와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의 개정결과를 별지와 같이 보고함

## 2. 보고이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7호 '현금흐름표'와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개정('23. 10. 27.의결)함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개정 배경

- IASB는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공시사항을 보완하여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23년 5월 '공급자금융약정' 관련 IAS 7과 IFRS 7을 개정하여 공표함
  - 따라서, 회계기준원은 이에 상응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7호 '현금흐름표'와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를 개정함

### 나. 개정안의 주요 내용

- ① (현금흐름표)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공시에 공급자금융약정을 구분하여 공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업이 참여한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 (문단 44F~44H)
- ② (금융상품: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유동성위험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사례로 추가(문단 B11F)하고, 위험 집중에 대한 양적 공시의 예시로 포함 (문단 IG18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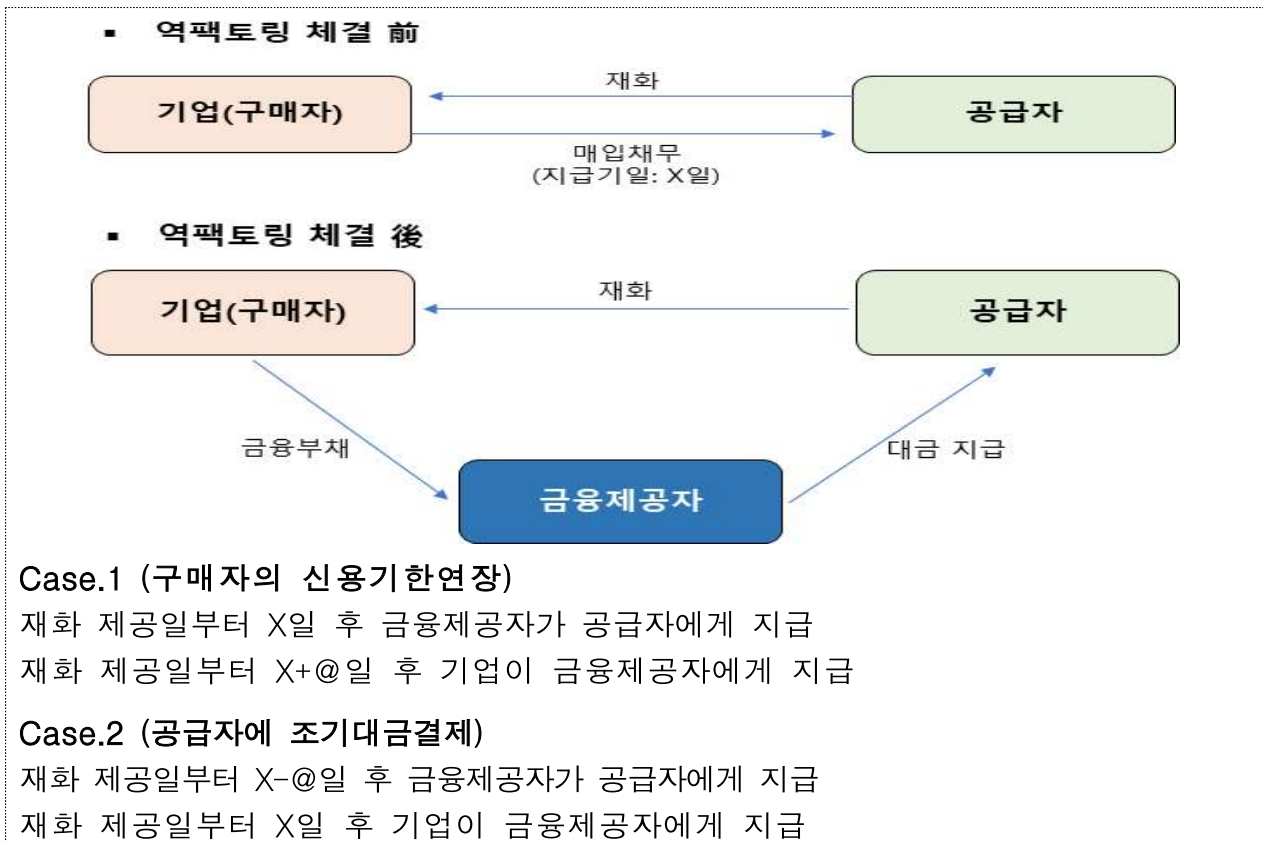
※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논의 결과('23.11.24.), 원안대로 접수

<참고> 공급자금융약정(역팩토링)에 대한 이해

□ (정의) 금융기관은 구매기업이 공급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구매기업은 공급자가 지급받은 날과 같거나 더 늦은 날 금융기관에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약정 (IAS 7 개정안 문단 44G)

\* 공급자금융약정과 달리 팩토링<sup>1)</sup>에서는 공급자와 금융기관 간 약정 설정에 구매기업이 관여하지 않음 (FASB 공개초안 BC15)

- 금융기관(先정산 기업)은 구매기업(고객)과 연계하여 미리 마련된 플랫폼下에서 공급자의 채권을 매입
- 공급자는 우량 고객의 신용을 활용하여 좋은 조건으로 현금을 일찍 받을 수 있고, 고객은 신용 제공뿐만 아니라 채무 상환 업무를 금융기관에 일임함으로써 관련 운영비용도 줄일 수 있음



□ 다음 약정들이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잠정적으로 판단

- Banker's Usance, 구매전용카드, 구매자금대출, e-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상생결제시스템, B2B대출(은행이 판매자에게 상환청구권 행사 가능한 대출), B2B플러스대출(은행이 판매자에게 상환청구권 행사 불가능한 대출)

1) 팩토링: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상매출금과 관련 팩토링회사(factor)가 수출업자를 대신하여 수입업자에 관한 신용조사, 신용위험의 인수, 금융의 제공, 대금의 회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무신용장방식의 수출 시 국제 팩토링을 이용하면 수출 시 외상수출에 따른 대금부담이 제거되고 수입 시에도 신용장 개설 없이 팩터의 보증으로 수입을 할 수 있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

## 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 (1) 시행일

☐ '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 조기 적용을 허용하되, 조기 적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도록 함

### (2) 경과 규정

☐ 각 국가와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아래와 같은 경과 규정 도입

- ①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전에 표시되는 보고기간에 대한 비교정보 공시 면제
  - ②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현재 K-IFRS 제1007호 문단 44H(2)(나)~(다)에서 요구하는 정보 공시 면제
  - ③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내 표시하는 중간보고기간에 대해 K-IFRS 제1007호 문단 44F~44H에서 요구하는 정보 공시 면제
- 다만, 공시에만 관련된 개정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초채택기업에 대한 특정 경과 규정을 제공하지는 않기로 함

## 라.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 공급자금융약정의 정의와 공시 항목을 명확히 하여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보다 목적적합하게 공시하여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

- 공급자금융약정이 금융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유동성위험을 평가 가능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 가. 개정경과

- ☐ 2023. 8. 18. 개정 공개초안 의결(회계기준위원회)
- ☐ 2023. 9. 4. ~ 2023. 10.6.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금융감독원 등)
- ☐ 2023. 10. 27.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 나. 제4차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서면보고(2023.11.24.)

### 다. 관련법규(붙임1)

<별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3. 10. 27.

## 저작권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및 부속 출판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가 발표한 것입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mailto:info@ifrs.org) Web: [www.ifrs.org](http://www.ifrs.org)

Copyright © 2023 IFRS Foundation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undation: IFRS Foundation) 및 이 출판물의 저작자와 출판자는, 이 출판물에 의거하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은 자의 부주의 등 여하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제회계기준(IAS) 및 해석서(Interpretations)를 포함하는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국제재무보고기준의 정본은 IASB가 발표한 영문판입니다. 사본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출판 및 저작권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mailto: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http://www.ifrs.org)

모든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이 없이, 이 출판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번역, 재인쇄, 재출간 또는 전자, 기계 또는 기타의 방법(복사와 리코딩을 포함한 정보저장과 검색의 방법으로서 알려진 것과 이후 개발될 것을 포함)에 의한 형태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동의 하에 국제회계기준과 이 출판물에 포함된 관련 문서들의 한국어 번역을 승인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에 대한 저작권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게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이나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3층, 04513, 전화: +82 (0)2 6050-0150, 팩스: +82 (0)2 6050-0170, 이메일: [webmaster@kasb.or.kr](mailto:webmaster@kasb.or.kr), 홈페이지: [www.kasb.or.kr](http://www.kasb.or.kr)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 정부의 동의를 얻어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의 한국 이외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한국어로 구성된 일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 또는 채택한 번호가 매겨진 모든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재무보고기준의 본문, 또는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IFRS IC)나 상설해석위원회(SIC)가 발표한 해석서의 본문(이하 '기준서 본문')으로 구성됩니다.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서 본문을 한국어로 재출간할 수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 한국 이외 지역에서 사용하는 모든 권리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한국어로 구성된 기준서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 COPYRIGHT NOTIC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together with their accompanying documents are issued by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mailto:info@ifrs.org) Web: [www.ifrs.org](http://www.ifrs.org)

Copyright © 2023 IFRS Foundation

The IASB, the IFRS Foundation, the authors and the publishers do not accept responsibility for loss caused to any person who acts or refrains from acting in reliance on the material in this publication, whether such loss is caused by negligence or otherwise.

IFRSs (which includ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Interpretations) are copyright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Foundation. The authoritative text of IFRSs is that issued by the IASB in the English language. Copies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Please address publication and copyright matters to: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mailto: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http://www.ifrs.org)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translated, reprinted or reproduced or utilised in any form either in whole or in part or by any electronic, mechanical or other means, now known or hereafter invented, including photocopying and recording, or in any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out prior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related material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has been approved by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in Korea with the permission of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is the copyright of the IFRS Foundation. Copies of the Korean translation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or the KASB, KCCI Building 3<sup>rd</sup> Flr., 39 Sejong-daero, Jung-gu, Seoul, 04513, Korea.

Tel: +82 (0)2 6050 0150

Fax: +82 (0)2 6050 0170

Email: [webmaster@kasb.or.kr](mailto:webmaster@kasb.or.kr)

Web: [www.kasb.or.kr](http://www.kasb.or.kr)

The IFRS Foundation has waived the right to assert its copyright in certain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such materials consist of all numbered, bar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in the form that they are issued or adopted by the IASB, or Interpretations issued by the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S IC) or Stand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S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sovereign consent and in connection with any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Reproduction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is permitted for any use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and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IFRS Foundation reserves all right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ny use other than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 내 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 1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1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와 기업회계기준서 '금융상품: 공시'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17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결론도출근거 개정 ..18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결론도출근거 개정 25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문단 44F~44H와 관련 제목 그리고 문단 62~63을 추가하였다. 문단 53 앞의 제목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 공급자금융약정

...

- 44F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문단 44G에서 기술함)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 44G      공급자금융약정은 하나 이상의 금융제공자가 기업이 공급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기업은 공급자가 지급받는 날과 같거나 이후에 약정 조건에 따라 금융제공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약정은 관련되는 청구서의 지급기일과 비교하여 기업에 연장지급 조건을 주거나 기업의 공급자에게 조기지급 조건을 준다. 공급자금융약정은 흔히 공급망금융, 매입채무금융 또는 역팩토링 약정으로 불린다. 단순 신용보강을 위한 약정(예: 보증으로 사용되는 신용장을 포함한 금융보증) 또는 갚아야 하는 금액을 공급자에게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하는 상품(예: 신용카드)은 공급자금융약정이 아니다.
- 44H      문단 44F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다음 내용을 통합하여 공시한다.
- (1) 약정의 조건(예: 연장지급 조건과 제공된 담보나 보증). 그러나 약정 간 조건이 상이한 경우 그 조건은 별도로 공시한다.
  - (2) 보고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에 다음 내용을 공시한다.
    - (가)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 (나) 문단 44H(2)(가)에 따라 공시하는 금융부채 중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  
게서 이미 금액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 (다) 문단 44H(2)(가)에 따라 공시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와 공급자  
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예: 청구서 발행일 후 30일 ~ 40일).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는 예를  
들어, 문단 44H(2)(가)에 따라 공시하는 금융부채와 동일한 사업계열  
또는 동일한 국가 내에 있는 매입채무이다.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  
위가 넓은 경우, 그 범위에 대한 설명을 공시하거나 추가 범위(예:  
계층화된 범위)를 공시한다.
- (3) 문단 44H(2)(가)에 따라 공시한 금융부채 장부금액의 비현금 변동 유형  
과 영향. 비현금 변동의 예로는 사업 결합, 외환차이 또는 현금및현금  
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그 밖의 거래들로 인한 영향이 있다.  
(문단 43 참조)

...

## 시행일과 경과 규정

---

...

- 62 2023년 x월에 발표된 ‘공급자금융약정’은 문단 44F~44H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  
다.
- 63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내용을 공시할 필요는 없다.
- (1) 이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전에 표시되는 보고  
기간에 대한 비교정보
- (2) 이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현재 문단 44H(2)  
(나)~(다)에서 요구하는 정보
- (3) 이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내 표시하는 중간보고기간  
에 대해 문단 44F~44H에서 요구하는 정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문단 44JJ를 추가하였고, 부록 B에서 문단 B11F를 개정하였다. 실무적용지침에서 문단 IG18A가 추가되었으며, 문단 IG18의 일부 문구는 새로 추가된 문단 IG18A로 이동하였다.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고, 새로운 문구 또는 재배치된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 시행일과 경과 규정

---

...

44JJ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를 개정하는 2023년 x월에 발표된 ‘공급자금융 약정’에 따라 문단 B11F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7호의 개정내용을 적용할 때 적용한다.

...

## 부록 B

### 적용지침

...

###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문단 31~42)

---

...

유동성위험에 대한 양적 공시(문단 34(1), 39(1)과 (2))

...

B11F      문단 39(3)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할 때에 고려할 수 있는 그 밖의 요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1) 유동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차입한도약정(예: 상업어음한도약정)이나 그 밖의 신용한도약정(예: 보증신용한도약정) 체결 여부
- (2) 유동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중앙은행 예치금 보유 여부
- (3) 매우 다양한 자금조달수단 보유 여부

- (4) 자산 또는 자금조달수단에 유동성위험의 유의적인 집중 여부
- (5)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절차 또는 비상계획의 유무
- (6) (예: 기업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상환시기를 앞당기는 조건을 포함하는 금융상품 보유 여부
- (7)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예: 파생상품에 대한 증거금 요구)할 수 있는 금융상품 보유 여부
- (8) 현금(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거나 자기주식을 인도하여 금융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금융상품 보유 여부
- (9) 일괄상계약정의 대상인 금융상품 보유 여부
- (10) 기업에 연장지급 조건을 주거나 기업의 공급자에게 조기지급 조건을 주는 공급자금융약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문단 44G에서 기술함)에 따른 한도약정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실무적용지침

...

###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문단 31~42와 B6~B28)

...

#### 양적 공시(문단 34~42와 B7~B28)

IG18 문단 34에서는 위험의 집중에 대한 양적 자료의 공시를 요구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용위험이 집중될 수 있다.

- (1) 산업부문.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하나 이상의 산업부문(예: 소매업 또는 도매업)에 집중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각 집중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를 구분하여 공시한다.
- (2) 신용등급이나 그 밖의 신용건전성.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하나 이상의 신용건전성(예: 담보 대여금 또는 무담보대여금)이나 하나 이상의 신용등급(예: 투자등급 또는 투기등급)에 집중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각 집중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를 구분하여 공시한다.

- (3) 지역별 분포.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하나 이상의 지역 시장(예: 아시아 또는 유럽)에 집중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각 집중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를 구분하여 공시한다
- (4) 제한된 수의 개별 거래상대방이나 밀접하게 관련된 거래상대방의 집합

~~이와 비슷한 원칙을 유동성위험과 시장위험을 포함한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집중을 식별해 낼 때 적용한다. 예를 들어, 유동성위험의 집중은 금융부채의 상환조건, 차입한도약정의 원천, 유동자산을 실현하기 위한 특정 시장 의존에서 발생할 수 있다. 외환위험의 집중은 하나의 외화에 노출된 유의적 순포지션이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몇 가지 통화에 노출된 통합 순포지션을 보유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IG18A 이와 비슷한 원칙을 유동성위험과 시장위험을 포함한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집중을 식별해 낼 때 적용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 (1) 유동성위험의 집중은 다음의 사항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 (가) 금융부채의 상환 조건
  - (나) 차입한도약정의 원천
  - (다) 유동자산(liquid assets)을 실현하기 위한 특정 시장의 의존
  - (라) 원래 공급자에게 갚아야 할 금융부채의 일부를 금융제공자에게 집중시키는 공급자금융약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문단 44G에서 기술함)
- (2) 외환위험의 집중은 하나의 외화에 노출된 유의적 순포지션이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몇 가지 통화에 노출된 통합 순포지션을 보유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 공급자금융약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공급자금융약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와 제1107호)의 개정(2023.10.27.)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한상(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광오, 박권추, 박정혁, 윤재원, 이동근, 전영순, 허세봉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27 다음에 문단 BC28~BC44와 제목 및 부제목을 추가하였다. 읽기 쉽게 하기 위해, 해당 문단 및 제목은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

### 공급자금융약정(문단 44F~44H)

---

#### 2023년 개정의 배경

BC28 2023년 5월 IASB는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를 요구하도록 IAS 7을 개정한 ‘공급자금융약정’(“2023년 개정”)을 발표하였다. 2020년 12월에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 ‘공급사슬 금융약정 - 역팩토링’ 안전결정에서는 2023년 개정 이전 공급자금융약정에 적용할 수 있는 IFRS 요구사항을 정하였다. 이 개정은 해당 요구사항의 한계를 지적한 재무제표이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안전결정에서 정한 공시 요구사항을 보완하였다. 이 개정은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다른 기업과 비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재무제표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공시 목적(문단 44F)

BC29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특정 정보를 충족하기 위해 IAS 7 문단 44F에서 두 가지 공시 목적을 개발하였다. 즉,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다음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 (1) 공급자금융약정이 부채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 (2) 공급자금융약정이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과 이 약정을 더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이해

#### 2023년 개정의 범위(문단 44G)



BC31 IASB는 요구사항을 개발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공급자금융약정을 고려하였고, 이러한 약정은 다양한 이유 및 구조로 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 (1) 기업은 금융제공자에게서 연장지급 조건을 얻는다. 금융제공자는 공급자에게 청구서의 지급기일에 갚아야 할 금액을 지급하고, 기업은 금융제공자에게 관련 청구 일자 이후에 청구서 상 금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다.
- (2) 기업은 금융제공자에게서 연장지급 조건을 얻지 못하였으나, 공급자금융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급자와 연장지급 조건을 협의하였을 수 있다. 공급자금융약정의 당사자인 공급자는 금융제공자에게서 청구서의 지급기일 이전에 할인된 금액을 받기로 선택할 수 있다.

BC32 IASB는 개정이 적용되는 약정의 유형을 일컫기 위해 '공급자금융약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요구사항에 대한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다.

- (1) 다음의 내용과 관계없이 모든 공급자금융약정을 포함한다.
  - (가) 약정을 체결한 이유
  - (나) 약정의 형태 및 명칭
  - (다)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에 관련 부채와 현금흐름을 표시한 위치 및 방법
- (2) 관행과 약정이 새롭게 진화하고 발전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3) 적용범위를 '기업이 공급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조달하는 약정(IAS 7 문단 44G 참조)으로 제한한다. 따라서, 2023년 개정은 수취채권이나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자금조달 약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적용범위가 넓어질수록 공급자금융약정 공시에 필요한 개선 사항을 지나치게 지연시킬 수 있다. 또한, IASB의 결정은 기업이 공급자가 수취채권을 사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취한 다른 조치(예: 매출채권 팩토링)를 식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BC33 IAS 7 문단 44G에서 기술한 공급자금융약정의 특성 중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가지고 있는 금융약정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이는 문단 BC29

에 명시된 특정 정보의 필요성이 공급자금융약정의 특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 신용보강을 위한 약정(예: 보증으로 사용되는 신용장을 포함한 금융보증) 또는 갚아야 하는 금액을 공급자에게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하는 상품(예: 기업이 공급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고 대신 신용카드 발급 은행에 채무를 지는 경우)은 공급자금융약정이 아니다.

## 공시 요구사항(문단 44H)

BC34 IASB는 IAS 7 문단 44F의 공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IAS 7 문단 44H의 공시 요구사항을 개발하였다. 기업은 다음을 공시하여야 한다.

- (1) 공급자금융약정의 조건. 이 공시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해당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특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 (2) IAS 7 문단 44H(2)(가)에서 요구하는 대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표시되는 항목. 이 공시는 공급자금융약정의 규모와 이 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표시되는 항목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 (3) IAS 7 문단 44H(2)(나)에서 요구하는 금융부채 중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서 이미 금액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표시되는 항목. 이 공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을 할 수 있게 해준다.
  - (가) 기업의 부채와 해당 부채가 영업 및 재무 현금흐름에 주는 영향 분석
  - (나)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과 이 약정을 더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기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
- (4)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와 이와 같은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이 공시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이러한 약정이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 IASB는 2021년 공개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고려하여, 이 공시를 위해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매입채무는 이러한 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와 비교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 (5) 보고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에 IAS 7 문단 44H(2)에서 요구하는 정보. 이 공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기간 중 변동을 평가하고 이러한 변화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통합된 정보

BC35 2023년 개정은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합하도록 요구한다. 2021년 공개초안은 약정 간 조건이 유사한 경우에만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공시 정보를 통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공시 목적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경우,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였다.

BC36 IASB는 2021년 공개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고려한 후, 대부분의 경우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가 통합되더라도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라 결정하였다. 이는 공급자금융약정이 IAS 7 문단 44G에 기술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재무제표이용자가 이러한 특성이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개별적인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정보를 통합하는 경우,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불분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23년 개정은 아래 내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 (1) 상이한 조건을 가진 약정들의 조건들을 별도 공시. 필요한 경우에 세분화된 정보가 제공되면 재무제표이용자는 기업이 체결한 서로 다른 유형의 약정을 평가할 수 있다.
- (2) IAS 7 문단 44H(2)(가)에 따라 공시된 금융부채 장부금액의 비현금 변동 유형과 영향. 이러한 비현금 변동은 보고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의 장부금액을 서로 비교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비현금 변동에는 사업결합, 외환차이 또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그 밖의 거래들로 인한 영향이 포함된다.(비현금 변동에 대한 추가 논의는 문단 BC37 참조)
- (3) 지급기일 범위에 대한 설명 정보 및 해당 범위가 넓은 경우 추가 범위. 재무제표이용자가 약정이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추가 정보가 필수적일 수 있다. 2023년 개정은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합하도록 요구한다. 2021년 공개초안은 약정 간 조건이 유사한 경우에만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공시 정보를 통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공시 목적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경우,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였다.

BC37 IAS 7 문단 BC36(2)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IAS 7 문단 44H(3)은 IAS 7 문단 44H(2)(가)에 따라 공시된 금융부채 장부금액의 비현금 변동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추가적인 공시 없이는 이러한 비현금 변동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재무제표이용자의 피드백을 고려하여 비현금 변동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보의 공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보다 비교 가능한 기준으로 한 보고기간과 다음 보고기간의 금융부채 장부금액을 평가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비현금 변동이 현금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공급자에게서 재화와 서비스를 매입할 때, 공급자에게 갚아야 하는 결제 금액에 따른 현금유출은 전형적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공급자에게 갚아야 하는 금액이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될 때, 약정의 조건을 고려하여 공급자에게 갚아야 하는 결제 금액에 대한 현금유출을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재무활동 현금유입을 보고하지 않고, 그 결과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비현금 변동을 일으켰을 수 있다. IAS 7 문단 44H(3)의 요구사항은 재무제표이용자가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 변동을 모두 포함)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하게 하는 IAS 7 문단 44A의 요구사항을 바꾸지 않는다.

BC38 IASB는 IAS 1 ‘재무제표 표시’ 문단 29~31에서 기업이 중요한 정보를 누락시키거나 불분명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단에 따라 정보의 통합(또는 세분화) 여부와 어떻게 통합(또는 세분화)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요구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IASB는 문단 BC36에서 기술한 바에 추가하여 정보의 세분화에 대한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 IASB는 공급자금융약정의 조건이 상이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개발하지 않았다.

공시 요구사항을 준수함에 따른 원가

BC39 2021년 공개초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은 IAS 7의 문단 44H(1), 44H(2)(가)와 44H(2)(다)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다고 IASB에게 알렸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에 상당한 원가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IAS 7 문단 44H(2)(나)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공급자금융약정에 따라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 이미 금액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표시되는 항목)를 즉시 이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IASB에게 알렸다. 일부 기업은 해당 공시를 위해 원가(예: 요구하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계약 조건 개정)가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이해관계자들, 특히 재무제표이용자는 이러한 공시가 없다면, 제공된 정보가 불완전할 것이고,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IASB에게 알렸다.(문단 BC34(3) 참조) IASB는 재무제표작성자와 이용자 간 원가와 효익을 분석하였고, 해당 정보 공시를 요구함에 따른 효익이 원가를 초과한다고 결론내렸다.

## 2023년 개정의 시행일과 경과 규정(문단 62~63)

BC40 IASB는 이 개정내용을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각 국과 기업에게 새로운 공시 요구사항의 적용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과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적시에 충족시키는 것 간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문단 BC29에 기술) IAS 7 문단 63에 기술한 바와 같이 시행일을 정하고 경과규정을 개발하였다.

BC41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IASB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다.

- (1) 각 국가가 새로운 요구사항을 각 국가의 법률체계에 포함하는 데 필요한 시간. 각 국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승인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일부 국가는 2024년 중간재무보고 기한에 맞춰 완료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IASB에 알렸다.
- (2) 기업이 공시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통제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회계법인이 그 정보(특히 IAS 7 문단

44H(2)(나)~(다)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감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 기업들은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까지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통제를 개발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최초 회계연도 시작일 후 프로세스와 통제를 개발한다면, 이러한 프로세스와 통제를 소급하여 신뢰성 있게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3) 이 개정의 특성. 이 개정은 인식 또는 측정 요구사항을 변경하지 않는다.

(4) 번역에 필요한 시간. 이 개정에서는 요구사항에 많은 양의 문구를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의 번역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BC42 IASB는 이미 시행 중인 IFRS의 공시 요구사항에서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행일과 경과 규정도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적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문단 BC28의 해석위원회 안전결정 내용 참조). 또 IASB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기업이 아직 적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IFRS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치의 변경과 오류’ 문단 30~31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BC43 IASB는 기업이 중간재무보고에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공시 요구사항을 변경하지 않았다. 기업은 IAS 34 ‘중간재무보고’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IASB는 IAS 7 문단 63(3)에 각 국가와 기업이 새로운 공시 요구사항 적용 준비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부담경감을 위한 경과 규정을 개발하였다.(문단 BC41에 기술)

BC44 IASB는 공시에만 관련된 이 개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초채택기업(IFRS 1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서 정의됨)을 위한 특정한 경과 규정을 제공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58D 다음에 문단 BC58E를 추가하였다. 읽기 쉽게 하기 위해 해당 문단은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

###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에 관한 공시(문단 31~42와 B6~B28)

---

...

유동성위험(문단 34(1), 39, B10A와 B11A~B11F)

...

BC58E IASB는 2023년 5월에 발표된 '공급자금융약정'에서 IFRS 7 문단 B11F의 유동성위험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사례로 공급자금융약정을 추가하였다. 공급자금융약정은 유동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자금의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자금융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부채 중 일부가 다양한 공급자 집합 대신 하나 또는 소수의 금융제공자로 집중될 수 있다. 만약, 급박하게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제공자가 하나 이상의 약정을 철회하는 경우, 기업의 현금흐름 압박을 증가시키고 만기가 도래할 때 부채 결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급자는 금융위기 상황에서 고객(기업)과 지급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거나 그럴 의향이 있을 수 있지만, 자본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해야하는 금융제공자는 지급조건 재협상이 불가능하거나 그럴 의도가 없을 수 있다. 재무제표이용자는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해당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가 필요하다. IFRS 7 문단 B11F 개정은 기업이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유동성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개정안 영·한 대비표

### K-IFRS 제1007호와 K-IFRS 제1107호 개정안 ‘공급자금융약정’

#### 본문

IFRS 개정	K-IFRS 개정안
<b>Amendments to IAS 7 Statement of Cash Flows</b>	<b>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개정</b>
<p>Paragraphs 44F-44H and their related heading and paragraphs 62-63 are added. For ease of reading, these paragraphs and their headings have not been underlined. The heading before paragraph 53 is amended. New text in that heading is underlined.</p>	<p>문단 44F~44H와 관련 제목 그리고 문단 62~63을 추가하였다. 읽기 쉽게 하기 위해, 해당 문단 및 제목은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문단 53 앞의 제목은 개정하였다. 개정된 제목 내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p>
<b>Supplier finance arrangements</b>	<b>공급자금융약정</b>
<b>44F</b> An entity shall disclose information about its supplier finance arrangements (as described in paragraph 44G) that enables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to assess the effects of those arrangements on the entity's liabilities and cash flows and on the entity's exposure to liquidity risk.	<b>44F</b>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문단 44G에서 기술함)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b>44G</b> Supplier finance arrangements are characterised by one or more finance providers offering to pay amounts an entity owes its suppliers and the entity agreeing to pay according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arrangements at the same date as, or a date later than, suppliers are paid. These	<b>44G</b> 공급자금융약정은 하나 이상의 금융제공자가 기업이 공급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기업은 공급자가 지급받는 날과 같거나 이후에 약정 조건에 따라 금융제공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약정은 관련되는 청구서의 지급일과 비교하여 기업에 연장지급



IFRS 개정	K-IFRS 개정안
<p>arrangements provide the entity with extended payment terms, or the entity's suppliers with early payment terms, compared to the related invoice payment due date. Supplier finance arrangements are often referred to as supply chain finance, payables finance or reverse factoring arrangements. Arrangements that are solely credit enhancements for the entity (for example, financial guarantees including letters of credit used as guarantees) or instruments used by the entity to settle directly with a supplier the amounts owed (for example, credit cards) are not supplier finance arrangements.</p>	<p>조건을 주거나 기업의 공급자에게 조기지급 조건을 준다. 공급자금융약정은 흔히 공급망금융, 매입채무금융 또는 역팩토링 약정으로 불린다. 단순 신용보강을 위한 약정(예: 보증으로 사용되는 신용장을 포함한 금융보증) 또는 갚아야 하는 금액을 공급자에게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하는 상품(예: 신용카드)은 공급자금융약정이 아니다.</p>
<p>44H To meet the objectives in paragraph 44F, an entity shall disclose in aggregate for its supplier finance arrangements:</p> <p>(a)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arrangements (for example, extended payment terms and security or guarantees provided). However, an entity shall disclose separately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rrangements that have dissimilar terms and conditions.</p> <p>(b) as at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reporting period:</p> <p>(i) the carrying amounts, and associated line items presented in the entity's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of the financial liabilities that are part of a</p>	<p>44H 문단 44F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다음 내용을 통합하여 공시한다.</p> <p>(1) 약정의 조건(예: 연장지급 조건과 제공된 담보나 보증). 그러나 약정 간 조건이 상이한 경우 그 조건은 별도로 공시한다.</p> <p>(2) 보고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에 다음 내용을 공시한다.</p> <p>(가)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p>

IFRS 개정	K-IFRS 개정안
<p>supplier finance arrangement.</p> <p>(ii) the carrying amounts, and associated line items, of the financial liabilities disclosed under (i) for which suppliers have already received payment from the finance providers.</p> <p>(iii) the range of payment due dates (for example, 30-40 days after the invoice date) for both the financial liabilities disclosed under (i) and comparable trade payables that are not part of a supplier finance arrangement. Comparable trade payables are, for example, trade payables of the entity within the same line of business or jurisdiction as the financial liabilities disclosed under (i). If ranges of payment due dates are wide, an entity shall disclose explanatory information about those ranges or disclose additional ranges (for example, stratified ranges).</p> <p>(c) the type and effect of non-cash changes in the carrying amounts of the financial liabilities disclosed under (b)(i). Examples of non-cash changes include the effect of business combinations, exchange</p>	<p>(나) 문단 44H(2)(가)에 따라 공시하는 금융부채 중 공급자가 금융제공사에게서 이미 금액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p> <p>(다) 문단 44H(2)(가)에 따라 공시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와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예: 청구서 발행일 후 30일 ~ 40일).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는 예를 들어, 문단 44H(2)(가)에 따라 공시하는 금융부채와 동일한 사업계열 또는 동일한 국가 내에 있는 매입채무이다.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가 넓은 경우, 그 범위에 대한 설명을 공시하거나 추가 범위(예: 계층화된 범위)를 공시한다.</p> <p>(3) 문단 44H(2)(가)에 따라 공시한 금융부채 장부금액의 비현금 변동 유형과 영향. 비현금 변동의 예로는 사업 결합, 외환 차이 또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그</p>

IFRS 개정	K-IFRS 개정안
differences or other transactions that do not require the use of cash or cash equivalents (see paragraph 43). ...	밖의 거래들로 인한 영향이 있다.(문단 43 참조) ...
Effective date and transition	시행일과 경과 규정
<p>...</p> <p>62 <i>Supplier Finance Arrangements</i>, issued in May 2023, added paragraphs 44F-44H. An entity shall apply those amendments for annual reporting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2024. Earlier application is permitted. If an entity applies those amendments for an earlier period, it shall disclose that fact.</p>	<p>...</p> <p>62 2023년 x월에 발표된 ‘공급자금융약정’은 문단 44F~44H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p>
<p>63 In applying <i>Supplier Finance Arrangements</i>, an entity is not required to disclose:</p> <p>(a) comparative information for any reporting periods presented before the beginning of the annual reporting period in which the entity first applies those amendments.</p> <p>(b) the information otherwise required by paragraph 44H(b)(ii)-(iii) as at the beginning of the annual reporting period in which the entity first applies those amendments.</p> <p>(c) the information otherwise required by paragraphs 44F-44H for any interim period presented within the annual reporting period in</p>	<p>63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내용을 공시할 필요는 없다.</p> <p>(1) 이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전에 표시되는 보고기간에 대한 비교 정보</p> <p>(2) 이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현재 문단 44H(2)(나)~(다)에서 요구하는 정보</p> <p>(3) 이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내 표시하는 중간보고기간에 대해 문단 44F~44H에서 요구하는 정보</p>

IFRS 개정	K-IFRS 개정안
which the entity first applies those amendments.	
<b>Amendments to IFRS 7 <i>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i></b>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
Paragraph 44JJ is added. In Appendix B, paragraph B11F is amended. In Guidance on implementing IFRS 7, paragraph IG18A is added. Some text from paragraph IG18 is moved to form part of the newly-added paragraph IG18A.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and new or repositioned text is underlined.	문단 44JJ를 추가하였고, 부록 B에서 문단 B11F를 개정하였다. 실무적용지침에서 문단 IG18A가 추가되었으며, 문단 IG18의 일부 문구는 새로 추가된 문단 IG18A로 이동하였다. 삭제되는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고, 새로운 문구 또는 재배치된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b>Effective date and transition</b>	<b>시행일과 경과 규정</b>
... 44JJ <u>Supplier Finance Arrangements</u> , issued in May 2023, which also amended IAS 7, amended paragraph B11F. An entity shall apply that amendment when it applies the amendments to IAS 7.	... 44JJ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를 개정하는 2023년 x월에 발표된 '공급자금융약정'에 따라 문단 B11F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개정내용을 적용할 때 적용한다.
...	...
<b>Appendix B</b> <b>Application guidance</b> ... <b>Nature and extent of risks arising from financial instruments (paragraphs 31-42)</b>	<b>부록 B</b> <b>적용지침</b> ...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문단 31~42)
... <b>Quantitative liquidity risk disclosures (paragraphs 34(a) and 39(a) and (b))</b> ... B11F Other factors that an entity might consider in providing the	... 유동성위험에 대한 양적 공시(문단 34(1), 39(1)과 (2)) ... B11F 문단 39(3)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할 때에 고려할 수 있는 그 밖

IFRS 개정	K-IFRS 개정안
<p>disclosure required in paragraph 39(c)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whether the ent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has committed borrowing facilities (eg commercial paper facilities) or other lines of credit (eg stand-by credit facilities) that it can access to meet liquidity needs;</li> <li>(b) holds deposits at central banks to meet liquidity needs;</li> <li>(c) has very diverse funding sources;</li> <li>(d) has significant concentrations of liquidity risk in either its assets or its funding sources;</li> <li>(e) has internal control processes and contingency plans for managing liquidity risk;</li> <li>(f) has instruments that include accelerated repayment terms (eg on the downgrade of the entity's credit rating);</li> <li>(g) has instruments that could require the posting of collateral (eg margin calls for derivatives);</li> <li>(h) has instruments that allow the entity to choose whether it settles its financial liabilities by delivering cash (or another financial asset) or by delivering its own shares; or</li> <li>(i) has instruments that are subject to master netting agreements; or</li> <li>(j) <u>has accessed, or has access to, facilities under supplier finance arrangements (as described in paragraph 44G of IAS 7) that</u></li> </ul>	<p>의 요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동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차입한도 약정(예: 상업어음한도약정)이나 그 밖의 신용한도약정(예: 보증신용한도약정) 체결 여부</li> <li>(2) 유동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중앙은행 예치금 보유 여부</li> <li>(3) 매우 다양한 자금조달수단 보유 여부</li> <li>(4) 자산 또는 자금조달수단에 유동성위험의 유의적인 집중 여부</li> <li>(5)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절차 또는 비상계획의 유무</li> <li>(6) (예: 기업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상환시기를 앞당기는 조건을 포함하는 금융상품 보유 여부</li> <li>(7)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예: 파생상품에 대한 증거금 요구)할 수 있는 금융상품 보유 여부</li> <li>(8) 현금(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거나 자기주식을 인도하여 금융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금융상품 보유 여부</li> <li>(9) 일괄상계약정의 대상인 금융상품 보유 여부</li> <li>(10) <u>기업에 연장지급 조건을 주거나 기업의 공급자에게 조기지급 조건을 주는 공급자 금융약정(기업회계기준서 제</u></li> </ul>

IFRS 개정	K-IFRS 개정안
<p><u>provide the entity with extended payment terms or the entity's suppliers with early payment terms.</u></p> <p>...</p>	<p><u>1007호 문단 44G에서 기술함)에 따른 한도약정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u></p> <p>...</p>
<p><b>Guidance on implementing IFRS 7 <i>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i></b></p> <p>...</p> <p><b>Nature and extent of risks arising from financial instruments (paragraphs 31-42 and B6-B28)</b></p>	<p><b>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실무적용지침</b></p> <p>...</p> <p>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문단 31~42와 B6~B28)</p>
<p>...</p> <p><b>Quantitative disclosures (paragraphs 34-42 and B7-B28)</b></p> <p>IG18 Paragraph 34 requires disclosure of quantitative data about concentrations of risk. For example, concentrations of credit risk may arise from:</p> <p>(a) industry sectors. Thus, if an entity's counterparties are concentrated in one or more industry sectors (such as retail or wholesale), it would disclose separately exposure to risks arising from each concentration of counterparties.</p> <p>(b) credit rating or other measure of credit quality. Thus, if an entity's counterparties are concentrated in one or more credit qualities (such as secured loans or unsecured loans) or in one or more</p>	<p>...</p> <p><b>양적 공시(문단 34~42와 B7~B28)</b></p> <p>IG18 문단 34에서는 위험의 집중에 대한 양적 자료의 공시를 요구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용위험이 집중될 수 있다.</p> <p>(1) 산업부문.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하나 이상의 산업부문(예: 소매업 또는 도매업)에 집중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각 집중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를 구분하여 공시한다.</p> <p>(2) 신용등급이나 그 밖의 신용건전성.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하나 이상의 신용건전성(예: 담보 대여금 또는 무담보대여금)이나 하나 이상의 신용등급(예: 투자등급 또는 투기등급)에 집중된 경우에</p>

IFRS 개정	K-IFRS 개정안
<p>credit ratings (such as investment grade or speculative grade), it would disclose separately exposure to risks arising from each concentration of counterparties.</p> <p>(c) geographical distribution. Thus, if an entity's counterparties are concentrated in one or more geographical markets (such as Asia or Europe), it would disclose separately exposure to risks arising from each concentration of counterparties.</p> <p>(d) a limited number of individual counterparties or groups of closely related counterparties.</p> <p><del>Similar principles apply to identifying concentrations of other risks, including liquidity risk and market risk. For example, concentrations of liquidity risk may arise from the repayment terms of financial liabilities, sources of borrowing facilities or reliance on a particular market in which to realise liquid assets. Concentrations of foreign exchange risk may arise if an entity has a significant net open position in a single foreign currency, or aggregate net open positions in several currencies that tend to move together.</del></p>	<p>는 거래상대방의 각 집중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를 구분하여 공시한다.</p> <p>(3) 지역별 분포.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하나 이상의 지역 시장(예: 아시아 또는 유럽)에 집중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각 집중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를 구분하여 공시한다.</p> <p>(4) 제한된 수의 개별 거래상대방이나 밀접하게 관련된 거래상대방의 집합</p> <p><del>어와 비슷한 원칙을 유동성위험과 시장위험을 포함한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집중을 식별해 낼 때 적용한다. 예를 들어, 유동성위험의 집중은 금융부채의 상환조건, 차입한도약정의 원천, 유동자산을 실현하기 위한 특정시장 의존에서 발생할 수 있다. 외환위험의 집중은 하나의 외화에 노출된 유의적 순포지션이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몇 가지 통화에 노출된 통합 순포지션을 보유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del></p>



IFRS 개정	K-IFRS 개정안
<p data-bbox="193 237 791 409"><u>IG18A Similar principles apply to identifying concentrations of other risks, including liquidity risk and market risk. For example:</u></p> <p data-bbox="288 468 791 546">(a) <u>concentrations of liquidity risk may arise from:</u></p> <p data-bbox="352 604 791 683">(i) <u>the repayment terms of financial liabilities;</u></p> <p data-bbox="352 696 791 775">(ii) <u>sources of borrowing facilities;</u></p> <p data-bbox="352 788 791 916">(iii) <u>reliance on a particular market in which to realise liquid assets; or</u></p> <p data-bbox="352 929 791 1285">(iv) <u>supplier finance arrangements (as described in paragraph 44G of IAS 7) resulting in the entity concentrating with finance providers a portion of its financial liabilities originally owed to suppliers.</u></p> <p data-bbox="288 1299 791 1655">(b) <u>concentrations of foreign exchange risk may arise if an entity has a significant net open position in a single foreign currency, or aggregate net open positions in several currencies that tend to move together.</u></p>	<p data-bbox="817 237 1414 454"><u>IG18A 이와 비슷한 원칙을 유동성위험과 시장위험을 포함한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집중을 식별해 낼 때 적용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u></p> <p data-bbox="954 468 1414 595">(1) <u>유동성위험의 집중은 다음의 사항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u></p> <p data-bbox="1002 609 1414 642">(가) <u>금융부채의 상환 조건</u></p> <p data-bbox="1002 701 1414 734">(나) <u>차입한도약정의 원천</u></p> <p data-bbox="1002 792 1414 920">(다) <u>유동자산(liquid assets)을 실현하기 위한 특정 시장의 의존</u></p> <p data-bbox="1002 934 1414 1196">(라) <u>원래 공급자에게 갚아야 할 금융부채의 일부를 금융제공자에게 집중시키는 공급자금융약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문단 44G에서 기술함)</u></p> <p data-bbox="954 1299 1414 1610">(2) <u>외환위험의 집중은 하나의 외화에 노출된 유의적 순포지션이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몇 가지 통화에 노출된 통합 순포지션을 보유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u></p>



IFRS 개정	K-IFRS 개정안
<p><b>Approval by the IASB of <i>Supplier Finance Arrangements</i> issued in May 2023</b></p>	<p>공급자금융약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p>
<p><i>Supplier Finance Arrangements</i>, which amended IAS 7 <i>Statement of Cash Flows</i> and IFRS 7 <i>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i>, was approved for issue by 12 of 14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Mr Esterer and Ms Keren abstained from voting in view of their recent appointment to the IASB.</p> <p>Andreas Barckow      Chair  Linda Mezon-Hutter   Vice-Chair  Nick Anderson  Patrina Buchanan  Tadeu Cendon  Florian Esterer  Zach Gast  Hagit Keren  Jianqiao Lu  Bruce Mackenzie  Bertrand Perrin  Rika Suzuki  Ann Tarca  Robert Uhl</p>	<p>‘공급자금융약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와 제1107호)의 개정(2023.10.27)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p> <p>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한상(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광오, 박권추, 박정혁, 윤재원, 이동근, 전영순, 허세봉</p>

## K-IFRS 제1007호와 K-IFRS 제1107호 개정 ‘공급자금융약정’

### 결론도출근거

IFRS 개정	K-IFRS 개정안
<b>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7 <i>Statement of Cash Flows</i></b>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Paragraphs BC28-BC44 and their heading and subheadings are added after paragraph BC27. For ease of reading, these paragraphs and their headings have not been underlined. The heading above paragraph BC48A is amended; new text is underlined.</p> </div>	<b>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결론도출근거 개정</b>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문단 BC27 다음에 문단 BC28~BC44와 제목 및 부제목을 추가하였다. 읽기 쉽게 하기 위해, 해당 문단 및 제목은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p> </div>
<b>Supplier Finance Arrangements (paragraph 44F~44H)</b>	<b>공급자금융약정(문단 44F~44H)</b>
<b>Background to 2023 amendments</b>  <p>BC28 In May 2023 the IASB issued <i>Supplier Finance Arrangements</i> ('the 2023 Amendments'), which amended IAS 7 to require an entity to provide additional disclosures about its supplier finance arrangements. The Agenda Decision <i>Supply Chain Financing Arrangements-Reverse Factoring</i> (published in December 2020 by the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sets out the requirements in IFRS Accounting Standards that were applicable to supplier finance arrangements prior</p>	<b>2023년 개정의 배경</b>  <p>BC28 2023년 5월 IASB는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를 요구하도록 IAS 7을 개정한 ‘공급자금융약정’('2023년 개정')을 발표하였다. 2020년 12월에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 ‘공급사슬 금융약정 - 역팩토링’ 안건결정에서는 2023년 개정 이전 공급자금융약정에 적용할 수 있는 IFRS 요구사항을 정하였다. 이 개정은 해당 요구사항의 한계를 지적한 재무제표이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안건결정에서 정한 공시 요구사</p>

IFRS 개정	K-IFRS 개정안
<p>to the 2023 Amendments. The amendments complement the disclosure requirements set out in the Agenda Decision in response to feedback from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about the limitations of those requirements. These targeted amendments are intended to enable users to obtain from financial statements information they need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supplier finance arrangements on an entity's financial statements and to compare one entity with another.</p>	<p>항을 보완하였다. 이 개정은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다른 기업과 비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재무제표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p>
<p><b>Disclosure objectives (paragraph 44F)</b></p> <p>BC29 The IASB developed the two disclosure objectives in paragraph 44F of IAS 7 to meet particular information needs of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namely to provide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with information to enable the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to assess how supplier finance arrangements affect an entity's liabilities and cash flows; and</li> <li>(b) to understand the effect of supplier finance arrangements on an entity's exposure to liquidity risk and how the entity might be affected if the arrangements were no longer available to it.</li> </ul>	<p><b>공시 목적(문단 44F)</b></p> <p>BC29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특정 정보를 충족하기 위해 IAS 7 문단 44F에서 두 가지 공시 목적을 개발하였다. 즉,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다음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급자금융약정이 부채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li> <li>(2) 공급자금융약정이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과 이 약정을 더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이해</li> </ul>
<p>BC30 Some respondents to the IASB's November 2021 Exposure Draft <i>Supplier Finance Arrangements</i></p>	<p>BC30 IASB의 2021년 ‘공급자금융약정’ 공개초안(‘2021년 공개초안’)에 대해 일부 의견제출자</p>

IFRS 개정	K-IFRS 개정안
<p>(the 2021 Exposure Draft') asked the IASB to require an entity to calculate and disclose particular effects of its supplier finance arrangements rather than to provide information that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would then use to assess the effects. However, other stakeholders informed the IASB that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employ various models when assessing the effects of these arrangements and, therefore,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need information to make their own calculations. The IASB concluded that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would derive greater benefit from making their own calculations, using information an entity discloses, even if those users might incur costs in doing so.</p>	<p>들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공급자금융약정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할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공급자금융약정의 특정 영향을 계산하고 공시하도록 요구할 것을 IASB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재무제표이용자는 이러한 약정의 영향을 평가할 때 다양한 모델을 사용하므로, 자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IASB에 알렸다.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가 원가를 부담하더라도 공시된 정보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함으로써 더 큰 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p>
<p><b>Scope of the 2023 Amendments (paragraph 44G)</b></p> <p>BC31 In developing the requirements, the IASB considered various types of supplier finance arrangements and noted that an entity might enter into arrangements with varying structures and for various reasons. For example:</p> <p>(a) an entity obtains extended payment terms from the finance providers. The finance providers pay suppliers the amount they are due on the invoice due date, while the</p>	<p><b>2023 개정의 범위(문단 44G)</b></p> <p>BC31 IASB는 요구사항을 개발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공급자금융약정을 고려하였고, 이러한 약정은 다양한 이유 및 구조로 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p> <p>(1) 기업은 금융제공자에게서 연장지급 조건을 얻는다. 금융제공자는 공급자에게 청구서의 지급기일에 갚아야 할 금액을 지급하고, 기업은 금융제공자에게 관련 청구 일자</p>

IFRS 개정	K-IFRS 개정안
<p>entity pays the finance providers an amount greater than the invoice amount, at a date later than the related invoice date.</p> <p>(b) an entity does not obtain extended payment terms from the finance providers, but the entity might have negotiated extended payment terms with its suppliers in the light of supplier finance arrangements being in place. Suppliers that are part of the supplier finance arrangement can choose to be paid a discounted amount by the finance providers earlier than the invoice due date.</p>	<p>이후에 청구서 상 금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다.</p> <p>(2) 기업은 금융제공사에게서 연장지급 조건을 얻지 못하였으나, 공급자금융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급자와 연장지급 조건을 협의하였을 수 있다. 공급자금융약정의 당사자인 공급자는 금융제공사에게서 청구서의 지급기일 이전에 할인된 금액을 받기로 선택할 수 있다.</p>
<p>BC32 The IASB decided to use the term 'supplier finance arrangements' to refer to the type of arrangements to which the amendments apply and developed the scope of the requirements:</p> <p>(a) to capture all supplier finance arrangements, irrespective of:</p> <p>(i) the reason an entity entered into those arrangements;</p> <p>(ii) the form or labelling of the arrangements; or</p> <p>(iii) where and how an entity presents the related liabilities and cash flows in its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and statement of cash flows.</p>	<p>BC32 IASB는 개정이 적용되는 약정의 유형을 일컫기 위해 '공급자금융약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요구사항에 대한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다.</p> <p>(1) 다음의 내용과 관계없이 모든 공급자금융약정을 포함한다.</p> <p>(가) 약정을 체결한 이유</p> <p>(나) 약정의 형태 및 명칭</p> <p>(다)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에 관련 부채와 현금흐름을 표시한 위치 및 방법</p>

IFRS 개정	K-IFRS 개정안
<p>(b) to remain operable as new practices and arrangements evolve and develop.</p> <p>(c) to confine the scope to arrangements that finance 'amounts an entity owes its suppliers' (see paragraph 44G of IAS 7). The 2023 Amendments therefore do not apply to an entity's arrangements that finance receivables or inventory. In the IASB's view, a wider scope might have unduly delayed the needed improvements to the disclosures about supplier finance arrangements. The IASB's decisions also mean that an entity is not required to identify other actions its suppliers might have taken to finance their receivables (for example, factoring of receivables).</p>	<p>(2) 관행과 약정이 새롭게 진화하고 발전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p> <p>(3) 적용범위를 '기업이 공급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조달하는 약정(IAS 7 문단 44G 참조)으로 제한한다. 따라서, 2023년 개정은 수취채권이나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자금조달 약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적용범위가 넓어질수록 공급자금융약정 공시에 필요한 개선 사항을 지나치게 지연시킬 수 있다. 또한, IASB의 결정은 기업이 공급자가 수취채권을 사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취한 다른 조치(예: 매출채권 팩토링)를 식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p>
<p>BC33 The scope excludes finance arrangements that might have some but not all the characteristics of supplier finance arrangements as described in paragraph 44G of IAS 7. This is because it is the characteristics of supplier finance arrangements (as described in paragraph 44G of IAS 7) that give rise to the particular information needs set out in paragraph BC29. Accordingly, arrangements that are solely credit enhancements for the</p>	<p>BC33 IAS 7 문단 44G에서 기술한 공급자금융약정의 특성 중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가지고 있는 금융약정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이는 문단 BC29에 명시된 특정 정보의 필요성이 공급자금융약정의 특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 신용보강을 위한 약정(예: 보증으로 사용되는 신용장을 포함한 금융보증) 또는 갚아야 하는 금액을 공급자에게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하는 상품(예: 기업이 공급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신용</p>

IFRS 개정	K-IFRS 개정안
<p>entity (for example, financial guarantees including letters of credit used as guarantees) or instruments used by the entity to settle directly with a supplier the amounts owed (for example, an entity uses a credit card to settle the amount owed to a supplier and will instead have an obligation to pay the issuing bank) are not supplier finance arrangements.</p>	<p>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고 대신 신용카드 발급 은행에 채무를 지는 경우)은 공급자금융약정이 아니다.</p>
<p><b>Disclosure requirements (paragraph 44H)</b></p> <p>BC34 The IASB developed the disclosure requirements in paragraph 44H of IAS 7 to achieve the disclosure objectives in paragraph 44F of IAS 7. An entity is required to disclose:</p> <p>(a) the terms and conditions of its supplier finance arrangements. This disclosure is to inform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that such arrangements are in place and to explain their nature.</p> <p>(b) the carrying amounts of financial liabilities, and associated line items, as required by paragraph 44H(b)(i) of IAS 7. This disclosure is to show the size of the entity's supplier finance arrangements and the line items in which the financial liabilities that are part of those arrangements are presented.</p>	<p><b>공시 요구사항(문단 44H)</b></p> <p>BC34 IASB는 IAS 7 문단 44F의 공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IAS 7 문단 44H의 공시 요구사항을 개발하였다. 기업은 다음을 공시하여야 한다.</p> <p>(1) 공급자금융약정의 조건. 이 공시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해당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특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p> <p>(2) IAS 7 문단 44H(2)(가)에서 요구하는 대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표시되는 항목. 이 공시는 공급자금융약정의 규모와 이 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표시되는 항목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p>



IFRS 개정	K-IFRS 개정안
<p>(c) the carrying amounts of financial liabilities, and associated line items, for which suppliers have already received payment from the finance providers, as required by paragraph 44H(b)(ii) of IAS 7. This disclosure is to enable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p> <p>(i) to analyse the entity's liabilities and their effects on operating and financing cash flows; and</p> <p>(ii) to understand the effect of supplier finance arrangements on the entity's exposure to liquidity risk and how the entity might be affected if the arrangements were no longer available to it.</p> <p>(d) the range of payment due dates of: financial liabilities that are part of a supplier finance arrangement; and comparable trade payables of the entity that are not part of such an arrangement. This disclosure is to enable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to assess how these arrangements affect the entity's cash flows. In response to feedback on the 2021 Exposure Draft, the IASB decided to clarify that for this disclosure, trade payables of the entity that are not part of a supplier finance arrangement need to be comparable to the financial</p>	<p>(3) IAS 7 문단 44H(2)(나)에서 요구하는 금융부채 중 공급자가 금융제공사에게서 이미 금액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표시되는 항목. 이 공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을 할 수 있게 해준다.</p> <p>(가) 기업의 부채와 해당 부채가 영업 및 재무 현금흐름에 주는 영향 분석</p> <p>(나)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과 이 약정을 더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기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p> <p>(4)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와 이와 같은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이 공시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이러한 약정이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 IASB는 2021년 공개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고려하여, 이 공시를 위해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매입채무는 이러한 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와 비교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p>



IFRS 개정	K-IFRS 개정안
<p>liabilities that are part of such an arrangement.</p> <p>(e) information required by paragraph 44H(b) of IAS 7 as at the beginning and end of each reporting period. This disclosure is to enable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to assess changes during the period in the financial liabilities that are part of a supplier finance arrangement and to understand how these changes affect the entity's cash flows.</p>	<p>(5) 보고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에 IAS 7 문단 44H(2)에서 요구하는 정보. 이 공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기간 중 변동을 평가하고 이러한 변화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p>
<p><b>Aggregated information</b></p> <p>BC35 The 2023 Amendments require an entity to aggregate the information it provides about its supplier finance arrangements. The 2021 Exposure Draft proposed that an entity be permitted to aggregate the information disclosed about supplier finance arrangements only whe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ose arrangements are similar. In addition, an entity would have been required to disclose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its supplier finance arrangements if necessary to meet the disclosure objectives.</p> <p>BC36 After considering feedback on the 2021 Exposure Draft, the IASB decided that, in most cases, aggregated information about an entity's supplier finance arrangements will satisfy the</p>	<p><b>통합된 정보</b></p> <p>BC35 2023년 개정은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합하도록 요구한다. 2021년 공개초안은 약정 간 조건이 유사한 경우에만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공시 정보를 통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공시 목적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경우,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였다.</p> <p>BC36 IASB는 2021년 공개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고려한 후, 대부분의 경우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가 통합되더라도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라 결정하였다. 이</p>

IFRS 개정	K-IFRS 개정안
<p>information needs of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This is because supplier finance arrangements share the characteristics described in paragraph 44G of IAS 7, and it is those characteristics that give rise to the information needs of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Therefore, information about each individual supplier finance arrangement is not need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However, to avoid material information being omitted or obscured when aggregated, the 2023 Amendments require an entity to disclose:</p> <p>(a) separately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rrangements that have dissimilar terms and conditions. Disaggregated information-if required-enables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to assess the different types of arrangements an entity has entered into.</p> <p>(b) the type and effect of non-cash changes in the carrying amounts of the financial liabilities disclosed under paragraph 44H(b)(i) of IAS 7. These non-cash changes are those that prevent the carrying amounts at the beginning of the reporting period and the carrying amounts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from being comparable to each other. These non-cash changes include</p>	<p>는 공급자금융약정이 IAS 7 문단 44G에 기술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재무제표이용자가 이러한 특성이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개별적인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정보를 통합하는 경우,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불분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23년 개정은 아래 내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p> <p>(1) 상이한 조건을 가진 약정들의 조건들을 별도 공시. 필요한 경우에 세분화된 정보가 제공되면 재무제표이용자는 기업이 체결한 서로 다른 유형의 약정을 평가할 수 있다.</p> <p>(2) IAS 7 문단 44H(2)(가)에 따라 공시된 금융부채 장부금액의 비현금 변동 유형과 영향. 이러한 비현금 변동은 보고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의 장부금액을 서로 비교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비현금 변동에는 사업결합, 외환차이 또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그 밖의 거래들로 인한 영향이 포함된다. (비현금 변동에 대한 추가 논의는 문단 BC37 참조)</p>

IFRS 개정	K-IFRS 개정안
<p>the effect of business combinations, exchange differences or other transactions that do not require the use of cash or cash equivalents. (See paragraph BC37 for further discussion of non-cash changes.)</p> <p>(c) explanatory information about the ranges of payment due dates, or additional ranges, if those ranges are wide. The additional information-if required-is necessary to enable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to assess the effect of arrangements on an entity's cash flows.</p>	<p>(3) 지급기일 범위에 대한 설명 정보 및 해당 범위가 넓은 경우 추가 범위. 재무제표이용자가 약정이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추가 정보가 필수적일 수 있다.</p>
<p>BC37 As described in paragraph BC36(b), paragraph 44H(c) of IAS 7 requires the disclosure of non-cash changes in the carrying amounts of the financial liabilities disclosed under paragraph 44H(b)(i) of IAS 7. In the IASB's view, it was necessary to highlight these non-cash changes in response to feedback from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that these non-cash changes might not be apparent without additional disclosure. Disclosure of this information enables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to assess the carrying amounts of financial liabilities on a more comparable basis from one reporting period to the next and to understand how these non-cash changes affect the</p>	<p>BC37 IAS 7 문단 BC36(2)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IAS 7 문단 44H(3)은 IAS 7 문단 44H(2)(가)에 따라 공시된 금융부채 장부금액의 비현금 변동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추가적인 공시 없이는 이러한 비현금 변동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재무제표이용자의 피드백을 고려하여 비현금 변동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보의 공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보다 비교 가능한 기준으로 한 보고기간과 다음 보고기간의 금융부채 장부금액을 평가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비현금 변동이 현금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공급자에게서 재화와 서비스를 매입할 때, 공급자에게 갚아야 하는 결제 금액</p>

IFRS 개정	K-IFRS 개정안
<p>entity's cash flows. For example, when an entity buys goods and services from suppliers, it would typically classify the cash outflows to settle amounts owed to its suppliers as a cash flow from operating activities. When an amount the entity owes its suppliers becomes part of a supplier finance arrangement, the entity—having considered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arrangement—might classify the cash outflow to settle the amount owed as a cash flow from financing activities. In such a circumstance, the entity might not have reported any cash inflow from financing activities, resulting in a non-cash change in liabilities arising from financing activities. The requirement in paragraph 44H(c) of IAS 7 does not alter the requirement in paragraph 44A of IAS 7 for an entity to provide disclosures that enable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to evaluate changes in liabilities arising from financing activities, including both changes arising from cash flows and non-cash changes.</p>	<p>에 따른 현금유출은 전형적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공급자에게 갚아야 하는 금액이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될 때, 약정의 조건을 고려하여 공급자에게 갚아야 하는 결제 금액에 대한 현금유출을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재무활동 현금유입을 보고하지 않고, 그 결과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비현금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 IAS 7 문단 44H(3)의 요구사항은 재무제표이용자가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 변동을 모두 포함)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하게 하는 IAS 7 문단 44A의 요구사항을 바꾸지 않는다.</p>
<p>BC38 The IASB noted that paragraphs 29-31 of IAS 1 <i>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i> require an entity to apply its judgement to determine whether and, if so, how it aggregates (or disaggregates) information in its financial</p>	<p>BC38 IASB는 IAS 1 ‘재무제표 표시’ 문단 29~31에서 기업이 중요한 정보를 누락시키거나 불분명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단에 따라 정보의 통합(또는 세분화) 여부와 어떻게 통합(또는 세분화)할 것인지 결</p>

IFRS 개정	K-IFRS 개정안
<p>statements to avoid omitting or obscuring material information. Accordingly, the IASB decided it was unnecessary to develop disaggregation requirements in addition to those described in paragraph BC36. For example, the IASB did not develop additional requirements to assist an entity in determining wheth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its supplier finance arrangements are dissimilar.</p>	<p>정하도록 요구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IASB는 문단 BC36에서 기술한 바에 추가하여 정보의 세분화에 대한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 IASB는 공급자금융약정의 조건이 상이한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개발하지 않았다.</p>
<p><b>Costs of complying with the disclosure requirements</b></p> <p>BC39 In responding to the 2021 Exposure Draft, stakeholders informed the IASB that the information an entity is required to disclose in applying paragraphs 44H(a), 44H(b)(i) and 44H(b)(iii) of IAS 7 is generally available to entities. The IASB was therefore of the view that an entity's application of these requirements would not result in substantial costs for that entity. However, some stakeholders informed the IASB that the information an entity is required to disclose in applying paragraph 44H(b)(ii) of IAS 7-the carrying amounts, and associated line items, of financial liabilities that are part of supplier finance arrangements for which suppliers have already received payment from the finance providers-might not be readily available. Some entities might</p>	<p><b>공시 요구사항을 준수함에 따른 원가</b></p> <p>BC39 2021년 공개초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은 IAS 7의 문단 44H(1), 44H(2)(가)와 44H(2)(다)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다고 IASB에게 알렸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에 상당한 원가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IAS 7 문단 44H(2)(나)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공급자 금융약정에 따라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 이미 금액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표시되는 항목)를 즉시 이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IASB에게 알렸다. 일부 기업은 해당 공시를 위해 원가(예: 요구하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계약 조건 개정)가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이해관계자들, 특히 재무제표이용자는 이</p>

IFRS 개정	K-IFRS 개정안
<p>have to incur costs to produce this disclosure, for example, by amending contractual terms and conditions to access the required information. Other stakeholders, particularly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informed the IASB that without this disclosure, the information provided would be incomplete and would fail to satisfy user information needs (see paragraph BC34(c)). The IASB evaluated the costs and benefits for preparers and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and concluded that the benefits of requiring disclosure of this information outweigh the costs.</p>	<p>러한 공시가 없다면, 제공된 정보가 불완전할 것이고,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IASB에게 알려졌다.(문단 BC34(3) 참조) IASB는 재무제표작성자와 이용자 간 원가와 효익을 분석하였고, 해당 정보 공시를 요구함에 따른 효익이 원가를 초과한다고 결론내렸다.</p>
<p><b>Effective date and transition of the 2023 Amendments (paragraph 62-63)</b></p> <p>BC40 The IASB decided to require an entity to apply the amendments for annual reporting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2024. The IASB set the effective date and developed the transition requirements described in paragraph 63 of IAS 7 to achieve a balance between providing sufficient time for jurisdictions and entities to prepar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disclosure requirements and meeting the information needs of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as described in paragraph BC29) on a timely basis.</p>	<p><b>2023년 개정의 시행일과 경과 규정(문단 62~63)</b></p> <p>BC40 IASB는 이 개정내용을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각 국과 기업에게 새로운 공시 요구사항의 적용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과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적시에 충족시키는 것 간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문단 BC29에 기술) IAS 7 문단 63에 기술한 바와 같이 시행일을 정하고 경과 규정을 개발하였다.</p>



IFRS 개정	K-IFRS 개정안
<p>BC41 In reaching its decisions, the IASB considered:</p> <p>(a) the time needed by jurisdictions to incorporate the new requirements into their legal systems. The IASB was informed that jurisdictions expect to have completed their endorsement processes by 31 December 2024, but some jurisdictions might be unable to do so in time for interim reporting deadlines during 2024.</p> <p>(b) the time needed by entities to develop processes and controls to collect and validate information to be disclosed and the time needed by audit firms to audit the information-particularly for the information required by paragraph 44H(b)(ii)-(iii) of IAS 7. Entities will need time to develop processes and controls to collect and validate information by the beginning of the annual reporting period in which an entity first applies the amendments. If an entity were to develop such processes and controls after the beginning of the first annual reporting period, it might not be possible to use those processes and controls, with the necessary reliability, on a retrospective basis.</p> <p>(c) the nature of the amendments. The amendments do not</p>	<p>BC41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IASB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다.</p> <p>(1) 각 국가가 새로운 요구사항을 각 국가의 법률체계에 포함하는 데 필요한 시간. 각 국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승인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일부 국가는 2024년 중간재무보고 기한에 맞춰 완료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IASB에 알렸다.</p> <p>(2) 기업이 공시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통제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회계법인이 그 정보(특히 IAS 7 문단 44H(2)(나)~(다)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감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 기업들은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까지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통제를 개발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최초 회계연도 시작일 후 프로세스와 통제를 개발한다면, 이러한 프로세스와 통제를 소급하여 신뢰성 있게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p> <p>(3) 이 개정의 특성. 이 개정은 인식 또는 측정 요구사항을 변경하지 않는다.</p>

IFRS 개정	K-IFRS 개정안
<p>change recognition or measurement requirements.</p> <p>(d) the time needed for translation. Translation into other languages is not expected to take substantial time and effort because the amendments do not add a large amount of text to the requirements.</p>	<p>(4) 번역에 필요한 시간. 이 개정에서는 요구사항에 많은 양의 문구를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의 번역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p>
<p>BC42 The IASB concluded that the effective date and transition requirements also meet the information needs of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on a timely basis because the disclosure requirements in IFRS Accounting Standards that are already in effect provide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with some information about an entity's supplier finance arrangements (as set out in the Agenda Decision (see paragraph BC28)). The IASB also noted that paragraphs 30-31 of IAS 8 <i>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i> require an entity to provide disclosures when new requirements in IFRS Accounting Standards have been issued but are not yet effective and the entity has not yet applied those new requirements.</p>	<p>BC42 IASB는 이미 시행 중인 IFRS의 공시 요구사항에서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행일과 경과 규정도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적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문단 BC28의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내용 참조). 또 IASB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기업이 아직 적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IFRS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치의 변경과 오류' 문단 30~31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고 보았다.</p>
<p>BC43 The IASB did not change any disclosure requirements applicable to an entity's interim financial reports on an ongoing basis; an entity applies the requirements in</p>	<p>BC43 IASB는 기업이 중간재무보고에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공시 요구사항을 변경하지 않았다. 기업은 IAS 34 '중간재무보고'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IASB는</p>



IFRS 개정	K-IFRS 개정안
<p>IAS 34 <i>Interim Financial Reporting</i>. The IASB developed the transition relief in paragraph 63(c) of IAS 7 considering the time needed by jurisdictions and entities to prepar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disclosure requirements (as described in paragraph BC41).</p>	<p>IAS 7 문단 63(3)에 각 국가와 기업이 새로운 공시 요구사항 적용 준비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부담경감을 위한 경과 규정을 개발하였다.(문단 BC41에 기술)</p>
<p>BC44 The IASB also decided not to provide specific transition requirements for first-time adopters (as defined in IFRS 1 <i>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 because of the disclosure-only nature of the amendments.</p>	<p>BC44 IASB는 공시에만 관련된 이 개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초채택 기업(IFRS 1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서 정의됨)을 위한 특정한 경과 규정을 제공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p>
<p><b>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7 <i>Financial Instrument: Disclosures</i></b></p> <div data-bbox="196 1290 783 1469"> <p>Paragraph BC58E is added after paragraph BC58D. For ease of reading, this paragraph has not been underlined.</p> </div>	<p>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결론도출근거 개정</p> <div data-bbox="815 1290 1402 1447"> <p>문단 BC58D 다음에 문단 BC58E를 추가하였다. 읽기 쉽게 하기 위해 해당 문단은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p> </div>
<p><b>Disclosures about the nature and extent of risks arising from financial instruments (paragraphs 31-42 and B6~B28)</b></p>	<p>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에 관한 공시(문단 31~42 와 B6~B28)</p>
<p>...</p> <p><b>Liquidity risk(paragraphs 34(a), 39, B10A and B11A-B11F)</b></p> <p>...</p>	<p>...</p> <p>유동성위험(문단 34(1), 39, B10A와 B11A~B11F)</p> <p>...</p>

IFRS 개정	K-IFRS 개정안
<p>BC58E In <i>Supplier Finance Arrangements</i> issued in May 2023, the IASB added supplier finance arrangements as an example within the liquidity risk disclosure requirements in paragraph B11F of IFRS 7. Supplier finance arrangements might provide an entity with access to funds to meet its liquidity needs. However, by entering into supplier finance arrangements, an entity might concentrate a portion of its liabilities with one or a few finance providers, instead of a diverse group of suppliers. If finance providers withdraw one or more arrangements during times of financial stress, which could occur at short notice, that withdrawal could increase pressure on an entity's cash flows and affect its ability to settle liabilities when they are due. A supplier might also be able or inclined to renegotiate payment terms with its customer (the entity) during times of financial stress, whereas finance providers-subject to capital requirements-might not be able or inclined to do s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need information to enable them to assess the effect of supplier finance arrangements on an entity's exposure to liquidity risk and understand how the entity manages this risk. The amendments to paragraph B11F of IFRS 7 emphasise the importance</p>	<p>BC58E IASB는 2023년 5월에 발표된 '공급자금융약정'에서 IFRS 7 문단 B11F의 유동성위험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사례로 공급자금융약정을 추가하였다. 공급자금융약정은 유동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자금의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자금융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부채 중 일부가 다양한 공급자 집합 대신 하나 또는 소수의 금융제공자로 집중될 수 있다. 만약, 급박하게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제공자가 하나 이상의 약정을 철회하는 경우, 기업의 현금흐름 압박을 증가시키고 만기가 도래할 때 부채 결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급자는 금융위기 상황에서 고객(기업)과 지급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거나 그럴 의향이 있을 수 있지만, 자본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금융제공자는 지급조건 재협상이 불가능하거나 그럴 의도가 없을 수 있다. 재무제표이용자는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해당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가 필요하다. IFRS 7 문단 B11F 개정은 기업이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유동성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p>

IFRS 개정	K-IFRS 개정안
of an entity providing liquidity risk information about its supplier finance arrangements.	

## 관 련 법 규

###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5조 (회계처리기준)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 ②~③ (생 략)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법인 또는 단체(이하 "회계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⑦ (생 략)

###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 1.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 2.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3.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 ②~⑦ (생 략)

### 3.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제3조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

- ①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소속으로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2. (생 략)

3.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

4. (생 략)

5. 법령 또는 고시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한 회계 또는 외부감사 관련 기준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하 제29조제3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재무·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영 제46조에 따른 회계전문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재무·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재무·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의 공인된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이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면서 재무·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 업무에 임원으로 10년 이상 또는 직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관계기관(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서 재무·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자본시장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조세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⑤~⑩ (생략)

#### 제4조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기관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이 위원장에 부의를 요청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⑬ (생략)

#### 제5조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① 한국회계기준원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제·개정 내용 및 외부 의견청취 결과

2. 제1호와 관련하여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회계처리기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의사록

②~③ (생략)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연 락 처	02-2100-2695